

2027
고2 문학
지학사

2027 고2 문학 지학사 | 1(1)(2) 성난 풀잎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AI 직전 보강

자, 이번에 살펴볼 작품은 수필 「성난 풀잎」이야. 이 작품은 문학의 ‘**윤리적 기능**’을 대표하는 작품이란다. 따라서 시험에서는 글쓴이의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깨달음**과 대비되는 인간 중심적 사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선생님, 「성난 풀잎」은 수필이라서 내용 파악은 되는데, 이 작품이 왜 문학의 **윤리적 기능**을 보여 주는 건지 잘 연결이 안 돼요. 그리고 글쓴이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고는 들었는데, 그걸 ‘농부’의 관점과 비교하는 게 어려워요.



그 지점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이 작품의 핵심 포인트란다. ‘윤리적 기능’이란 문학 작품을 읽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인가**’를 스스로 돌아보고 **성찰**하게 만드는 힘을 말해. 이 수필은 ‘**인간 중심적 사고**’가 과연 옳은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보여 주기 때문에 윤리적 기능이 잘 드러나는 거란다.



자, 그럼 글쓴이의 인식이 어떻게 변했는지 ‘농부’의 관점과 비교하며 살펴볼까?

1. 변화 이전의 관점: 농부의 관점(인간 중심적 사고)

농부에게 ‘잡풀’이란 무엇이었지? ‘논밭에 심고 가꾸는 것이 아닌 것은 죄다 잡풀’이라고 했어. 즉, **인간에게 이로운가 해로운가의 쓸모**를 기준으로만 가치를 판단하는 거야. 농사에 방해가 되니 뽑아버려야 할 원수 같은 존재로 여기지. 이것이 바로 **인간 중심적 관점**이란다. 글쓴이도 **풀독에 오르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야.

2. 변화 이후의 관점: 글쓴이의 깨달음(생태주의적 관점)

글쓴이는 잡풀을 뽑다가 ‘풀독’이 오른 경험을 하게 돼. 그런데 이 경험을 통해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지. 풀독이 오른 것을, ‘한갓 잡풀일망정 뽑히고 베일 때’ 자신을 해치려는 존재에 대해 ‘**성난**’ 풀잎이 **저항한 결과**라고 생각한 거야. 이를 통해 인간만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하찮게 여겼던 **잡풀까지도 모두 동등한 가치를 지닌 생명체**임을 깨닫게 된 것이지. 이게 바로 **자연과 인간을 동등하게 보는 생태주의적 관점**이란다.





아, 두 관점의 차이가 바로 핵심이군요! 그런데 제목인 '성난 풀잎'의 의미와 글쓰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연스럽다'는 말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맞아, 그 두 가지는 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야.

- 제목 '성난 풀잎'의 의미: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행동에 대해 경고하고 질책하는 존재를 의미해.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한 비판과 반성을 담은 제목인 거지.
- 핵심어 '자연스럽다'의 의미: 처음 글쓰기는 자연이 인간의 운명에 무관심하다는 점에서 '자연스럽다'는 말이 '매물스럽고 정나미가 떨어진 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풀독을 읽고 난 후, 그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되지. 여기서 '자연스럽다'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힘이 더해지지 않은 본연의 상태, 즉 모든 존재가 동등하게 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이 작품은 글쓰기가 풀독을 읽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인간 중심적 사고를 버리고 모든 생명을 존중하며 살아야 한다'는 보편적인 윤리적 깨달음으로 생각을 확장시킨 글이야. 이처럼 독자가 자신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문학의 윤리적 기능이란단다. 잘 기억해 두렴!



네, 선생님! 이제야 작품의 주제와 문학의 윤리적 기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겠어요. 관점의 차이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해 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2027
고2 문학
지학사

2027 고2 문학 지학사 | 1(1)(2) 성난 풀잎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파란색 설명은 주석 교과서에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며, 빨간색 설명은 내신 시험 출제 유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문 분석

예로부터 하늘과 땅은 어질지가 않다[天地不仁]는 말이 있다.(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 - 인용) 온갖 생물을 낳고 기르면서도 그 생물들 가운데 어느 것을 편들거나 어느 것을 떼치거나 하지 않고 자연에 그대로 맡긴다(천지는 만물을 만들고 길러 냄에 있어 억지로 인심을 쓰지 아니하고 동등하게 대하며 자연 그대로 맡김.)는 뜻이다. 서양의 한 자연주의 작가 역시 자연은 인간의 운명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인용.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에 인용을 통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큰 잉어가 어린 붕어를 먹고, 큰 붕어가 어린 피라미를 먹고, 큰 피라미가 어린 송사리를 먹고, 큰 송사리가 어린 생이를 먹고 살더라도 말리지 않으며,]([: 자연의 냉혹한 먹이 사슬 - 점강법) [넓고 넓은 바닷가의 오막살이집에서 늙은 아버지가 고기잡이를 하며 철모르는 딸과 함께 살다가 배가 뒤집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르쇠를 댄다]([: 자연의 섭리가 인간에게도 적용됨을 의미함.)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자연스럽다(핵심어)'라는 말처럼 매물스럽고 정나미가 떨어지는 말(인간의 노력이나 의지와 무관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다는 말의 의미와 글쓴이가 자연스럽다는 말을 '매물스럽고 정나미가 떨어지는 말'이라고 표현한 이유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인간 중심적 가치관에 토대를 둔 생각이기 때문에) 자연은 인간의 힘을 더하지 않은 채 우주 사이에 저절로 된 그대로 그냥 있는 것(자연의 본성)이 제 본성이기 때문이다.

▶ 자연의 본성에 대한 인식

▶ 처음: 자연은 우주 사이에 저절로 된 그대로 그냥 있는 것이 '본성'임.

아무 데나 나는 풀도 이름이 없는 풀은 없다(존재하는 모든 것이 가치가 있다는 의미임.)고 한다. 그러나 농부는 저마다 논밭에 심고 가꾸는 것이 아닌 것은 죄다 잡풀(농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이라고 한다. 자기에게 필요할 때는 나물도 되고 화초도 되고 약초도 되고 목초도 되고 거름도 되고 하는 풀도 필요가 없을 때는 잡풀이 되는 것이다.(풀을 대하는 농부의 인식 - 인간 중심적 사고. 오직 인간에게 이로운지 해로운지만을 중심으로 어떤 상황이냐 사태를 파악하는 관점. 농부의 인식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잡풀로 그치는 것만도 아니다. 논밭에 나서 서로가 살려고 작물과 경쟁을 할 때는 여지없이 농부의 원수가 되어 낮에 베이거나 호미에 뽑히거나 농약에 마르거나 하여 덧없이 죽어 가기 마련이다. 논밭의 작물은 주인의 발걸음 소리에 자란다(작물은 주인의 사랑과 관심으로 자란다는 의미임.)는 말을 들을 때 잡풀의 서러움(미움을 받기 때문에)은 그 무엇에 견주어 말한대도 성에 찰리가 없을 터이다.

▶ 잡풀에 대한 농부의 인식

나는 장마 전에 시골집에 가서 고추밭과 집터서리에 뒤덮인 잡풀을 이틀에 걸쳐서 뽑고 베고 하였다.(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을 소개함.) 장마가 지면 고추밭이 풀밭이 되고 올안의 빗물도 빠지지 않아서 나간 집이나 다름이 없어질 터이기 때문이었다. 풀을 뽑고 베는 동안에 팔과 다리에 '풀독'이 올랐다.(풀이나 나뭇가지에 베이고 긁혀 피부가 쓰러지고 가려운 증상이 나타남. 풀독이 오르기 전과 오른 후 글쓴이의 인식 변화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뽑히고 베일 때 성이 난 풀잎에 팔과 다리가 긁히더니 이윽고 벌겋게 부르트면서 옷이나 움이 오른 것처럼 가렵고 따갑고 쓰라려서 안절부절못하게 된 거였다. 약국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이라면서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인위적 치료 방법 ①)을 주었지만,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았다. 누구는 병원의 주사 한 방

(인위적 치료 방법 ㉔)이면 직방으로 나올 텐데 미련을 떼다고 흉을 보기도 했다. 그러나 장마가 끝나도록 병원을 찾지 않았다.

▶ 잡풀을 제거하다 풀독이 올라 힘들었던 '나'의 경험

▶ 중간: '나'는 풀독이 올라서 고통스러웠으나 병원을 찾지 않음.

한갓 잡풀일망정 뽑히고 베일 때 왜 느낌이 없을 수 있겠는가.(잡풀에게도 느낌이 있음을 강조 - 설의법. 모든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동등하게 인식하는 관점, 생태주의적 관점. 이 구절의 표현법과 그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풀독이 오른 경험을 통해 글쓴이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느낌이 있다면 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풀들이 자신을 해하려는 대상에 대항하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임. - 설의법) 자연스럽게다는 것은 본디 **인간의 뜻과 무관한 것**(자연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과는 무관함.)이 아니었던가. **풀독은 근 달포나 되어서야 자연스럽게 가라앉았다.**(인위적 치료 없이 자연스럽게 원래대로 돌아옴.)

▶ 자연의 본성에 대한 확인

▶ 끝: 병원에 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의 풀독이 가라앉음.

- 「**성난 풀잎**(인간 중심적인 사고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고 해치는 태도를 경고하고 질책하는 존재를 가리킴. **제목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2027
고2 문학
지학사

2027 고2 문학 지학사 | 1(1)(2) 성난 풀잎 지문 확인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확인

예로부터 하늘과 땅은 어질지가 않다[天地不仁]는 말이 있다.(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 - ___) 온갖 생물을 낳고 기르면서도 그 생물들 가운데 어느 것을 편들거나 어느 것을 때치거나 하지 않고 자연에 그대로 맡긴다(천지는 만물을 만들고 길러 냄에 있어 억지로 인심을 쓰지 아니하고 ___ 하게 대하여 자연 ___ 맡김.)는 뜻이다. 서양의 한 자연주의 작가 역시 자연은 인간의 운명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

___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에 인용을 통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___ 하고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큰 잉어가 어린 붕어를 먹고, 큰 붕어가 어린 피라미를 먹고, 큰 피라미가 어린 송사리를 먹고, 큰 송사리가 어린 생이를 먹고 살더라도 말리지 않으며,]([]: 자연의 냉혹한 먹이 사슬 - ___ 법) [넓고 넓은 바닷가의 오막살이집에서 늙은 아버지가 고기잡이를 하며 철모르는 딸과 함께 살다가 배가 뒤집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르쇠를 댄다]([]: ___ 의 ___ 가 ___ 에게도 적용됨을 의미함.)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자연스럽다(핵심어)’라는 말처럼 매몰스럽고 정나미가 떨어지는 말(___ 의 ___ 이나 ___ 와 무관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다는 말의 의미와 글쓴이가 자연스럽다는 말을 ‘매몰스럽고 정나미가 떨어지는 말’이라고 표현한 이유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___ 중심적 가치관에 토대를 둔 생각이기 때문에) 자연은 인간의 힘을 더하지 않은 채 우주 사이에 저절로 된 그대로 그냥 있는 것(___ 의 ___)이 제 본성이기 때문이다.

▶ 자연의 ___ 에 대한 ___

▶ 처음: ___ 은 우주 사이에 저절로 된 ___ 그냥 있는 것이 ‘___ ’임.

아무 데나 나는 풀도 이름이 없는 풀은 없다(___ 하는 모든 것이 ___ 가 있다는 의미임.)고 한다. 그러나 농부는 저마다 논밭에 심고 가꾸는 것이 아닌 것은 죄다 잡풀(___에게 ___ 이 되지 않는 존재)이라고 한다. 자기에게 필요할 때는 나물도 되고 화초도 되고 약초도 되고 목초도 되고 거름도 되고 하는 풀도 필요가 없을 때는 잡풀이 되는 것이다.(풀을 대하는 농부의 인식 - ___ 적 사고. 오직 ___ 에게 ___ 지 ___ 지만을 중심으로 어떤 상황이나 사태를 파악하는 관점. 농부의 인식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잡풀로 그치는 것만도 아니다. 논밭에 나서 서로가 살려고 작물과 경쟁을 할 때는 여지없이 농부의 원수가 되어 낮에 베이거나 호미에 뽑히거나 농약에 마르거나 하여 덧없이 죽어 가기 마련이다. 논밭의 작물은 주인의 발걸음 소리에 자란다(작물은 주인의 ___ 과 ___ 으로 자란다는 의미임.)는 말을 들을 때 잡풀의 서러움(___을 받기 때문에)은 그 무엇에 견주어 말한대도 성에 찰 리가 없을 터이다.

▶ ___ 에 대한 ___ 의 인식

나는 장마 전에 시골집에 가서 고추밭과 집터서리에 뒤덮인 잡풀을 이틀에 걸쳐서 뽑고 베고 하였다.(글쓴이가 자신의 ___ 을 소개함) 장마가 지면 고추밭이 풀밭이 되고 울안의 빗물도 빠지지 않아서 나간 집이나 다름이 없어질 터이기 때문이었다. 풀을 뽑고 베는 동안에 팔과 다리에 ‘풀독’이 올랐다.(풀이나 나뭇가지에 베이고 긁혀 피부가 쓰리고 가려운 증상이 나타남. 풀독이 오르기 전과 오른 후 글쓴이의 인식 변화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뽑히고 베일 때 성이 난 풀잎에 팔과 다리가 긁히더니 이윽고 별걸게 부르트면서 옷이나 움이 오른 것처럼 가렵고 따갑고 쓰라려서 안절부절못하게 된 거였다. 약국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이라면서 먹는 약과 바르는 약(___적 치료 방법 ①)을 주었지만,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았다. 누구는 병원의 주사 한 방(___적 치료 방법 ②)이면 직방으로 나올 텐데 미련을 떠한다고 흥을 보기도 했다. 그러나 장마가 끝나도록 병원을 찾지 않았다.

▶ ___ 을 제거하다 ___ 이 올라 힘들었던 ‘나’의 ___

▶ 중간: '나'는 _____이 올라서 고통스러웠으나 _____을 찾지 않음.

한갓 잡풀일망정 뽑히고 베일 때 왜 느낌이 없을 수 있겠는가.(잡풀에게도 _____이 있음을 강조 - _____법. 모든 존재의 _____를 인정하고 _____하게 인식하는 관점, _____적 관점. **이 구절의 표현법과 그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풀독이 오른 경험을 통해 글쓴이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느낌이 있다면 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풀들이 자신을 해하려는 대상에 _____하려는 것은 _____ 것임. - _____법.) 자연스럽게는 것은 본디 **인간의 뜻과 무관한 것**(자연은 _____의 _____나 _____과는 무관함.)이 아니었던가. **풀독은 근 달포나 되어서야 자연스럽게 가라앉았다.**(_____적 치료 없이 _____게 원래대로 돌아옴.)

▶ 자연의 _____에 대한 _____

▶ 끝: _____에 가지 않고 _____게 '나'의 _____이 가라앉음.

- 「**성난 풀잎**(_____적인 사고로 _____를 거스르고 해치는 태도를 _____하고 _____하는 존재를 가리킴. **제목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2027
고2 문학
지학사

2027 고2 문학 지학사 | 1(1)(2) 성난 풀잎 내신 암기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암기용

1. 작품 개관

갈래	현대 수필
성격	사색적 , 교훈적
제재	잡풀 을 뽑고 베어내다 풀독이 오른 경험
주제	인간 중심적 사고 에 대한 성찰 과 반성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글쓰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함. • 자연을 바라보는 글쓰이의 관점이 반영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함.

2. 구성

처음	자연 은 우주 사이에 저절로 된 그대로 그냥 있는 것이 ‘본성’ 임.
중간	‘나’는 풀독 이 올라서 고통 스러웠으나 병원 을 찾지 않음.
끝	병원 에 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의 풀독 이 가라앉 음.

3. ‘자연스럽다’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는 근원적으로 동등함. • 인간의 의지나 노력과는 무관하며, 인위적 조작이 개입되지 않음.

4. 글쓰이의 인식 변화

풀독이 오르기 전	고추밭과 집터서리에 뒤덮인 잡풀 을 이들에 걸쳐서 뽑고 베.	인간 중심적 관점
-----------	--	------------------



풀독이 오른 후	풀독은 풀이 자신을 해치 려는 자에게 탄발 한 작용임을 깨달 음.(풀의 살려는 의지)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가 동등 하다는 관점, 인간 도 자연 의 일부라는 관점, 생태주의적 관점
----------	--	--

5. 작품의 주제

인간의 의지 나 노력 과는 무관한 것이 자연 의 본성임.	잡풀에 대한 동부 의 인식 (인간 중심적 사고)	풀독 이 오른 글쓰이의 경험 과 깨달 음
--	---	---



인간 중심적 사고 에 대한 성찰
--

6. '잡풀'에 대한 '농부'와 '나'의 관점

농부	글쓴이
'논밭에 심고 가꾸는 것이 아닌 것은 죄다 잡풀'이다.	'한갓 잡풀일망정 뽑히고 베일 때 왜 느낌이 없을 수 있겠는가.'
↓	↓
오직 인간 에게 이로 운 지 해로운 지만을 중심으로 어떤 상황이나 사태를 파악하는 관점 → 인간 중심적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생명은 가치가 있다는 관점 • 인간 중심적 사고를 벗어나 인간도 자연을 초월한 예외적 존재가 아닌, 잡풀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일부라는 관점 → 모든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동등하게 인식하는 관점, 생태주의적 관점

7. 학습 활동 「그 샘」 작품 개관

갈래	서정시, 산문시
성격	회상적 , 향토적
제재	고향 마을에 있던 '그 샘'
주제	이웃 간의 배려 와 훈훈한 정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릴 적 고향에서 겪은 일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함. • 향토적 시어를 사용하여 시골 마을의 훈훈한 인정을 드러냄. • 구어체의 종결 방식을 통해 정감 어린 분위기를 형성함. • 시각적,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에 구체적인 인상을 부여함.

TEST 1단계

1. 작품 개관

갈래	현대 □필
성격	□색적, □훈적
제재	□풀을 뽑고 베어내다 풀□이 오른 경□
주제	인□ 중심적 사□에 대한 성□과 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의 □을 인□하여,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뒷□침함. • 자□을 바라보는 글쓴이의 관□이 반영된 구체적 사□를 제시함.

2. 구성

처음	자□은 우주 사이에 저절로 된 그대로 그 냥 있는 것이 '본□'임.
중간	'나'는 풀□이 올라서 고□스러웠으나 병□ □을 찾지 않음.
끝	병□에 가지 않고 자□스럽게 '나'의 풀□ 이 가□□음.

3. '자연스럽다'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을 포함한 모든 존□는 근원적으로 동□ 함. • 인□의 의□나 노□과는 무관하며, 인□적 조 작이 개□되지 않음.
--

4. 글쓴이의 인식 변화

풀독이 오르기 전	고추밭과 집터서 리에 뒤덮인 잡□ 을 이틀에 걸쳐서 뽑고 뱀.	인□ 중심적 관점
-----------------	---	-----------



풀독이 오른 후	풀독은 풀이 자신 을 해□려는 자에 게 반□한 작용임 을 깨□음.(풀의 □려는 의□)	인□ 중심적 관점 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가 동□하다 는 관점, 인□도 자□의 일부라는 관점, 생□주의적 관점
-------------	---	--

5. 작품의 주제

인□의 의□나 노□과는 무관 한 것이 자□ 의 본성임.	잡풀에 대한 농□의 인식 (인□ 중심적 사고)	풀□이 오른 글쓴이의 경□ 과 깨□음
---	------------------------------------	----------------------------



인□ 중심적 사□에 대한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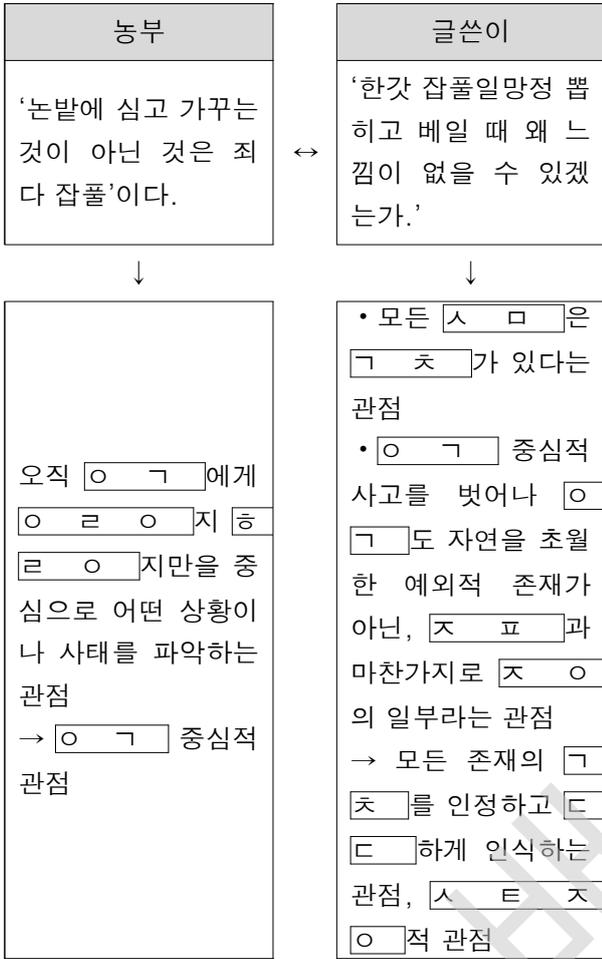
6. '잡풀'에 대한 '농부'와 '나'의 관점

농부	글쓴이
'논밭에 심고 가꾸는 것이 아닌 것은 죄다 잡풀'이다.	'한갓 잡풀일망정 뽑히고 베일 때 왜 느낌이 없을 수 있겠는가.'
↓	↓
오직 인□에게 이□□지 해□□지만을 중심으로 어떤 상황이나 사태를 파악하는 관점 → 인□ 중심적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생□은 가□가 있다는 관점 • 인□ 중심적 사고를 벗어나 인□도 자연을 초월한 예외적 존재가 아닌, 잡□과 마찬가지로 자□의 일부라는 관점 → 모든 존재의 가□를 인정하고 동□하게 인식하는 관점, 생□주의적 관점

7. 학습 활동 「그 샘」 작품 개관

갈래	서정시, □문시
성격	회□적, 향□적
제재	고□ 마을에 있던 '그 샘'
주제	이□ 간의 배□와 훈훈한 □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릴 적 고□에서 겪은 일을 회□하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함. • 향□적 시어를 사용하여 시□ 마을의 훈□한 인□을 드러냄. • □어체의 종□ 방식을 통해 정□ 어린 분위기를 형성함. • □각적, □각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에 구체적인 인상을 부여함.

6. '잡풀'에 대한 '농부'와 '나'의 관점



7. 학습 활동 「그 샘」 작품 개관

갈래	서정시, ㅅ ㅁ 시
성격	ㅎ ㅅ 적, ㅎ ㅌ 적
제재	ㄱ ㅎ 마을에 있던 '그 샘'
주제	○ ○ 간의 ㅂ ㄹ 와 훈훈한 ㅈ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 적 ㄱ ㅎ 에서 겪은 일을 ㅎ ㅅ 하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함. • ㅎ ㅌ 적 시어를 사용하여 ㅅ ㄱ 마을의 ㅎ ㅎ 한 ○ ㅈ 을 드러냄. • ㄱ ○ 체의 ㅈ ㄱ 방식을 통해 ㅈ ㄱ 어린 분위기를 형성함. • ㅅ ㄱ 적, ㅎ ㄱ 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에 구체적인 인상을 부여함.

O / X 문제

【1~8】 「성난 풀잎」에 대해 제시된 설명이 적절하면 O, 아니면 X를 선택하시오.

1. 이 작품은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준다는 '인식적 기능'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볼 수 있다. (O / X)

2. 제목 '성난 풀잎'은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고 해치는 태도를 경고하고 질책하는 존재를 가리킨다. (O / X)

3. '농부'는 인간의 쓸모에 따라 식물의 가치를 판단하는 인간 중심적 관점을 보여 준다. (O / X)

4. 글쓴이는 잡풀을 뽑다가 풀둑이 오른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썼다. (O / X)

5. 글쓴이는 풀둑을 앓은 후, 잡풀도 인간과 동등하게 자신을 해하려는 대상에게 반발할 수 있음을 깨닫는다. (O / X)

1. X 2. O 3. O 4. O 5. O

2027
고2 문학
지학사

2027 고2 문학 지학사 | 1(1)(2) 성년 풀이 복습 필기용 지문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복습 필기용은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실 때 학습용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또는 학생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이해한 것을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이해를 점검하도록 하세요!

지문

예로부터 하늘과 땅은 어질지가 않다[天地不仁]는 말이 있다. 온갖 생물을 낳고 기르면서도 그 생물들 가운데 어느 것을 편들거나 어느 것을 때치거나 하지 않고 자연에 그대로 맡긴다는 뜻이다. 서양의 한 자연주의 작가 역시 자연은 인간의 운명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를테면 큰 잉어가 어린 붕어를 먹고, 큰 붕어가 어린 피라미를 먹고, 큰 피라미가 어린 송사리를 먹고, 큰 송사리가 어린 생이를 먹고 살더라도 말리지 않으며, 넓고 넓은 바닷가의 오막살이집에서 늙은 아버지가 고기잡이를 하며 철모르는 딸과 함께 살다가 배가 뒤집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르쇠를 댄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자연스럽다'라는 말처럼 매몰스럽고 정나미가 떨어지는 말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자연은 인간의 힘을 더하지 않은 채 우주 사이에 저절로 된 그대로 그냥 있는 것이 제 본성이기 때문이다.

아무 데나 나는 풀도 이름이 없는 풀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농부는 저마다 논밭에 심고 가꾸는 것이 아닌 것은 죄다 잡풀이라고 한다. 자기에게 필요할 때는 나물도 되고 화초도 되고 약초도 되고 목초도 되고 거름도 되고 하는 풀도 필요가 없을 때는 잡풀이 되는 것이다. 잡풀로 그치는 것만도 아니다. 논밭에 나서 서로가 살려고 작물과 경쟁을 할 때는 여지없이 농부의 원수가 되어 낮에 베이거나 호미에 뽑히거나 농약에 마르거나 하여 덧없이 죽어 가기 마련이다. 논밭의 작물은 주인의 발걸음 소리에 자란다는 말을 들을 때 잡풀의 서러움은 그 무엇에 견주어 말한대도 성에 찰 리가 없을 터이다.

나는 장마 전에 시골집에 가서 고추밭과 집터서리에 뒤덮인 잡풀을 이틀에 걸쳐서 뽑고 베고 하였다. 장마가 지면 고추밭이 풀밭이 되고 울안의 빗물도 빠지지 않아서 나간 집이나 다름이 없어질 터이기 때문이었다. 풀을 뽑고 베는 동안에 팔과 다리에 '풀독'이 올랐다. 뽑히고 베일 때 성이 난 풀잎에 팔과 다리가 긁히더니 이윽고 별경게 부르트면서 옷이나 움이 오른 것처럼 가렵고 따갑고 쓰라려서 안절부절못하게 된 거였다. 약국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이라면서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주었지만,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았

다. 누구는 병원의 주사 한 방이면 직방으로 나올 텐데 미련을 떴다고 흥을 보기도 했다. 그러나 장마가 끝나도록 병원을 찾지 않았다.

한갓 잡풀일망정 뽑히고 베일 때 왜 느낌이 없을 수 있겠는가. 느낌이 있다면 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자연스럽다는 것은 본디 인간의 뜻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던가. 풀독은 근 달포나 되어서야 자연스럽게 가라앉았다.

- 「성난 풀잎」

핵심 정리

목민배포심지